

존·로크의 실체개념

양 선숙

→ 목 차 ←
* 글머리에
I. 두개의 실체관념: 실체일반의 관념 대 개별종의 실체관념 가. 단순관념들? / 나. 실체일반의 관념 다. 개별종의 실체관념 / 라. 다른 견해들
II. 두개의 본질: 명목상의 본질 대 실 재적 본질 가. 개요 / 나. 두개의 본질 / 다. 두개의 본질의 불일치 * 맷음말 * 참고문헌

* 글머리에

‘로크의 실체’는, 그 자체로는 아무 속성도 없으면서 모든 속성을 아래에 깔려있는 기체를 가리키는 거의 하나의 관용어구이다. 본 논문은 그런 관용어구가 로크에게 귀속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로크 자신의 실체개념은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쓰여진다. 텍스트는 로크의 “인간지성에 관한 한 시론”이다.

실체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주목받아온 철학용어들 가운데 하나이다. “범주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범주와 9개의 비실체범주들간의 중요한 구분을 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실체는 ‘그것은 무엇인가?’, 즉 ‘그것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라는 물음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등등의 그외의 범주들은 실체에 관하여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계승자들은 이 비실체범주들을 ‘우유성’이라고 불렀다. ‘실체-우유성’은 스콜라적 세계의 전 범위를 지배하는 사변의 근본적 틀이었다. 위대한 근대과학의 출발시기였던 17세기에 살았던 로크는, 물론 그 자신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나, 스콜라주의의 몇몇 개념들에 강한 반감을 느꼈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실체’라는 용어에 접하자 약간 미묘한 태도를 취했고, 그 결과로 그가 ‘실체’를 받아들였는가에 관하여 여러 다양한, 거의 반대되는 입장에서의 해석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로크를 공정하게 대우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그의 태도상의 미묘함이 그의 우유부단함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되리라 생각한다.

로크는 ‘실체’라는 용어로부터 스콜라주의의 구태를 탈각시키는 작업을 꾀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이해이다. 그는 스콜라철학자들이 ‘실체’를 철학적 담화에 끌어들이는 방식을 비난했는데, 로크에 따르면 ‘실체’란 비독립적인 성격을 띤, 따라서 지지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우유성’이라는 스콜라주의자 자신들의 용어에서 기인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도입되었다. 그 경우에 실체란, 우유성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으로서 가정된 기체를 뜻하는 텁빈 개념이다. 기체는 원래 우리의 인지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런 관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의 그것에 대한 무지는 불가피하다. 로크는 이러한 잡하지 않는 실체개념을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한다해도 원칙적으로는 알려질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 하려고 했다. 그의 대안은 바로 입자설 지지자였던 그 자신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본질이었다. 이 본질은 비지각적 입자들로 구성된, 사물의 내적 구조로서 로크는 이를 ‘실재적 본질’이라고 불러 ‘명목상의 본질’과 대비시킨다. ‘명목상의 본질’이란 우리가 일상적 감각경험에서 획득하는 성질들에 관한 관념이외에 다름아니다. 실재적 본질은 감각적 성질이 그로부터 흘러나오고, 그에 의존하는 기초이자 원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사항은 로크의 실재적 본질은 존재적으로 관념적이 아닌 실재적인 지위를 지녔다는 점이다. 성질들은 사실적으로 실재적 본질에 의존하고, 본질은 성질들의 사실적인 기초이다. 바로 이것이 왜 실재적 본질이 유효하고도 의미있게 기체를 대신하는가의 이유이기도 하다.

I. 두개의 실체관념: 실체일반의 관념(idea of substance in general) 대 개별종의 실체관념(ideas of particular sorts of substances)¹⁾

가. 단순관념들?

우리의 논의를 Essay 제2권 23장 ‘우리의 실체의 복합관념들에 관하여’(of our complex ideas of substances)에서 시작하겠다. 아래의 제1절은 실체관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형식을 지니고 있다.

마음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외부대상들에서 발견되고, 감관에 의해 운반되는, 또는 마음 자신의 작용에 관한 반성에 의해서 운반되어지는, 많은 수의 단순관념들을 공급받는다. 마음은, 일정수의 이 단순관념들이 항상적으로 함께 나타남을 또한 주목한다. 이 단순관념들은 한 사물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그리고 단어들이 공통된 파악에 알맞고 빠른 전달을 위해 사용되므로, 이 단순관념들은 한 이름에 의해서, 한 주체에 묶여 있는 것으로 불려진다. 후에 이것들을 우리는 부주의하게, 마치 하나의 단순관념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나 실상은 많은 관념들이 함께 있는 복합체이다. 우리는 이 단순관념들이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는가를 상상하지 못하고서, 그들이 내재하고²⁾, 그것으로부터 결과하

1) 17세기의 융성하는 대영제국의 한 일원이었던 로크는 라틴어로 된 철학용어에 약간의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에게 sorts는 genera와 species 양자 대신에 쓰여질 수 있는 영어단어였다.

2) ‘내재한다’는 ‘inhere in’을 옮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 표현이 언어적 차원에서의 것인가, 존재적 차원의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로크는 시종일관 존재적 차원의 그것으로 사

는, 따라서 우리가 실체라고 부르는 어떤 기체(substratum)을 가정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3)

(2, 23, 1)⁴⁾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 i) 우리는 감각과 반성을 통해 단순관념들을 얻고,
- ii) 이 단순관념들이 내재하는 한 사물을 가정하는데,
- iii) 그 이유는 단순관념들이 어떻게 흘로 있게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 iv) ii)의 한 사물은 기체, 실체라고 불린다.

그런데 실체개념의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ii)에서의 단순관념들이 만약 심리적인 감각현상을 뜻한다면, ii)에서 상정되는 기체는 정신뿐일 것이다. 심적 현상이 있는 곳은 정신일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로크는 외부대상들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이 점은 후에 버클리가 비난한 바로 그 점이기도 한다(때때로 로크는 물질적인 정신의 가능성을 이야기까지 한다).⁵⁾ 따라서 로크는 ii)에서 ‘단순관념들’이라고 둥뚱그려 표현할 것이 아니라, ‘외부대상의 성질들과 마음안의 그 외부대상의 성질들에 대한 관념들’이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됨직하다.

그러나 로크는 명시적으로 ‘관념들’이 ‘성질들’로 바꾸어서 읽혀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말했다.

……관념들을 내가 때로는, 사물들 자체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한다면, 나는 우리들 안에 관념들을 산출하는, 대상들 안에 있는 성질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2, 8, 8)

사실 로크는 ‘성질들’이라고 써야 할 자리에 ‘관념들’이라고 자주 썼다. 그러나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는 보일이 이미 행한 1차성질과 2차성질의 구분을 그대로 채택했다. ‘관념들’이 ‘대상들 안에 있는 성질들’로 이해될 수 있을 때, 2차성질은 과연 대상들 안에 있다고 말해질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지극히 어리석게 들려질 수도 있겠다. 우리는 오히려 2차성질들만이 성질들이라는 명칭에 합당하며, 1차성질인 형태, 움직임, 정지, 수는 성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용어사용상의 차이라고 여겨진다. 당신의 ‘성질들’은 스콜라철학에서의 ‘우유성’ 대신에 쓰여지는 표현이었으며, ‘우유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개의 범주를 포괄하는 것 이었다.⁶⁾

용한다. 그러나 존재적으로 내재한다라는 것이 상자안에 구슬이 담겨있는 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구슬은 상자 밖으로 꺼내질 수 있다. 색과 무게가 공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이 있게 되는 더 큰 것이란 있을 수 없다.

3) 외부대상들, 곧 물질적인 사물들에서 발견되는 ‘관념들’이란 곧 ‘성질들’이다. 로크에게서 성질들은 관계관념, 양상관념과는 구분된다. 성질들이 흘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양철학의 한 공리이다.

4) 팔호안의 숫자는 Essay의 권수, 장수, 절수를 차례로 나타낸다.

5) Essay, (3, 3, 6).

6) R. S. Woolhouse, p.96~p.104 참조. 이하 저자명으로 서명을 대산하다. 그러나 참고문헌란에 포

또한 로크는 1차성질인 형태, 움직임, 크기 등을 거시적 차원에서의 대상들의 그것들로서가 아니라 미시적인 입자들의 그것들로서 더 많이 생각한다. 우리는 그의 1, 2차성질의 구분을 우리가 거시적 차원에서 대상들을 파악하는 범주들이 미시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가에 따른 구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달콤함과 희이 만나에 실재로 있지 않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만나의 입자들의 움직임, 크기, 그리고 형태에 의해서 만나가 눈과 혀에 작용함의 효과일 뿐이다. (2, 8, 18)

그러나 우리가 이에 오래 머무를 필요는 없다. 로크는 실체관념을 이루는 요소에 분명히 2차성질을 포함시킨다. 2차성질들은 대상들에 본래적으로 있는 성질들은 아니나,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로서, 실체관념의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각가능한 성질들⁷⁾은 우리가 실수로 그것에 어떤 실재성을 부여하더라도 실상은 대상들 자체에 있는, 우리들 안에 다양한 감각을 산출하는 힘들에 불과하다.⁸⁾(2, 8, 14)

……힘들은 실체라는 복합관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실체들의 2차성질들이 바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실체들을 서로서로 구분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소용되고, 또한 보통 몇몇 종의 실체의 복합관념의 지대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2, 28, 8)

우리는 앞서 ‘외부대상의 성질들에 대한 관념들이 있게 되는 곳’으로서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사실상 로크의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로크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적 사물과 정신을 나누는 2원론자들이 정신을 ~로서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정신이 물질적 사물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즉 정신의 작용이란 무엇인가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신이 외부의 대상을 감각하고, 생각하고, 그것에게로 손을 뻗치도록 신체를 움직인다는 것—이것들의 작용의 주체로서 정신은 상정된다. 그런데 로크에게서는 이런 정신의 작용들 또한 우리가 그에 대해서 관념들—단순관념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지각함, 사고함, 의심, 믿음, 추론함, 암, 의지함, 그리고 그외의 모든 다른 마음의 작용들 :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 자신 안에서 관찰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지성 안으로 분명한 관념들로서 받아들인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감관에 작용하는 물체들로부터 분명한 관념을 받아들임과 같다. (2, 1, 4)

그런데 문제는 로크가 마음의, 또는 정신의 작용들 중에서 인지작용의 대상을 관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이다.⁹⁾ 이는 넓게는 그가 표상설지지자였는가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지만, 여기서는 마음의 작용의 대상이 관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의 작

함되지 않은 서명은 저자명과 함께 쓴다.

7) 여기서의 지각 가능한 성질들은 2차성질들을 가리킨다.

8) 이 표현을 ‘…대상들 자체에 있지 않고, 단지 …힘일 뿐이다’라고도 읽을 수 있다.

9) Essay, (1, 1, 8).

용에 대해서 관념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데 촉점을 맞추자. 로크에 따르면, 우리는 반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들에 대한 관념을 가진다.

(앞의 인용문에서 계속됨) 이 관념의 출처는 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각자 안에 있다. 그것은 외부 대상들과 무관하게, 감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것에 매우 유사해서 내적인 감각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다른 또 하나의 출처를 감각이라고 부르고, 이 출처를 반성이라고 부르겠다…….(2, 1, 4)

그러면 이 반성이라는 한 마음의 작용에 대해 관념을 가지는 마음의 작용은 무엇인가? 또 하나의 반성작용이 요구되지 않는가? 이 문제가 로크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데카르트의 *cogito ergo sum*에서의 *cogito*가 또 하나의 *cogito*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종종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 무한소급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두가지일 것이다. 반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허구로, 즉 의식이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는 것을 가공된 사실로 간주하거나, 반성이라는 것에 아주 독특한 인지적 지위를 부여해서 반성에 대해서 성립하는 반성이란 성립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의 작용의 무한소급에서 구제된다. 그런데 전자는 우리의 보통의 언어용법을 무시하여야만 가능하다. 우리는 ‘나는 이러저러하게 생각한다(또는 생각했다)’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며, 심리적 주체로서의 자아(self-ego)가 자의식(self-consciousness)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빈번히 상정되는 하나의 사실이다. 후자는 반성, 곧 자기의식을 개개의 모든 인지현상에 수반되는 것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정당하게 성립하는 반성은 이 책상에 대한 나의 의식에 고유하게 포함되며, 이 책상에 대한 나의 의식에 대한 또 다른 나의 의식은 있을 수 없다. 로크에게 ‘내성적 방법’이 귀속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랩(J.D.Rabb)은 이렇게 쓴다.

.....그러나 로크는 마음이 그 자신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의식함을 부인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실상 로크는 반성이란 용어를 이 직접적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¹⁰⁾

프레이저(A.C.Fraser)는 자신이 편집한 *Essay*에 이렇게 주를 달았다.

로크의 반성은 강화된 자기의식이고, 그것은 감각지각에 결부된 자기의식과 모든 그와 같은 의식상태로부터 오로지 정도의 차이만을 가진다.¹¹⁾

우리의 의식이 자신의 작용대상으로서 관념을 가지고, 동시에 그 자신을 대상으로 가진다는 말이 일으키는 거부감은 의식과 의식대상인 관념이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암시에서 기인되리라 생각된다. 로크가 과연 염려스러운 기분으로 이야기한 것인지는 의심스럽지만 그 자신은 이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¹²⁾

따라서 로크가 관념을 마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관

10) J. Douglas Rabb, p.44.

11) A. C. Fraser, p.159.

12) *Essay*, (2, 1, 5).

찰자와 외부대상 사이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어떤 거리, 공간적인 틈이 끼어들지 않는, 마음과 그 대상을 의도했다고 로크를 옹호할 수 있다. 의식작용과 관념은 하나이며, 자기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때조차도, 그 의식작용은 그 자신과 하나이다. 자의식은 자신을 저기에 두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직접적으로 의식한다. 모든 관념들은 의식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안에 의식과 함께 있다.

이쯤되면 의식의 현상학이 왜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는 없다. 여하튼 로크에게, 마음의 작용들은 우리가 그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앞서의 대상들의 성질들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시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ii)에서 그것들이 내재하는 한 사물을 가정케 되는 '단순관념들'이란, '외부대상의 성질들과 마음의 작용들'이다.

그럼 왜 로크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상의 이해과정을 거쳐야 납득이 되는 '단순관념들'이란 표현을 썼는가? 내게는 로크가 문장의 주어를 마음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비물질적인 마음은 오로지 역시 비물질적인 관념들과만 접촉할 수 있다는 원칙은 그 당시의 인식론적 원리였고,¹³⁾ 이는 관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철학이론이 어떻게 쉽게 베클리에서와 같은 관념론으로 귀결될 수 있는가를 해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로크는 지금 논의되는 Essay 제2권 23장 1절에서 어떻게 마음이 실체라는 복합관념을 형성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데, 복합관념은 단순관념에 마음의 작용이 가해져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의 요소심리학적 주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로크는 마음을 주어로 했어야 했고, 이의 귀결로 단순관념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부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순관념들을 외부대상의 성질들과 마음의 작용들로 고쳐 읽을 때, 우리는 이미 두개의 실체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로크가, 우리가 실체로서의 외부적 사물이라는 관념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체로서의 정신이라는 관념을 가진다고 말했을 때, 그가 의미하는 바이기도 했다. 우리는 사고, 추론, 좋아함, 무서워함 등의 일련의 한그룹으로 묶이는, 마음의 작용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음을 알고 있고, 그 외에 성질들이라고 묶여지는 단어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두개의 그룹이 명백히 구분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물질적인 사물과 영혼을 구분하는 이원론에 보다 가까이 가는 셈이다. 그리고 이 이원적인 구분은 그의 외감/내감, 성질들/관념들, 실재적 본질/명목상의 본질의 구분에 반영되고 있는 Essay 전체의 전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실체일반의 관념

그럼 이 논문의 주제인 실체관념의 논의로 들어가자. 먼저, 맨 처음에 인용된 로크의 언명과, 그 내용요약을 상기해 보면, 우리는 Essay 제2권 23장 1절이 심리적인 과정의 서술과, 왜 그런 심리적 과정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설명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 i)과 ii)는 전자에 해당하고, 요약 iii)과 iv)는 후자에 해당한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서술부분에 나타나는 '한 사물'이란 말과, 설명부분에 나타나는 기체, 실체라는¹⁴⁾ 말의 차이이다.

13) J. W. Yolton, p.6, pp88~104 참조.

마음이 성질들 — 앞으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단순관념들’을 ‘성질들’로 고쳐 부르겠다. — 이 내재하는 것으로서 상정하는 ‘한 사물’의 성격을 우선 생각해보자.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실체에 관한 논의의 중심은 개별자에게 놓여진다(언어철학에서 고유명사가 자연종의 이름과 같은 비중을 가지고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도 동일한 맥락하에서이다). 우리의 관심을 로크에게 투사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크의 그것이 개별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실체가 아니었음을 발견한다. 그도 역시 개별자는 암의 출발점이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유했었다. 이는 Essay가 일종의 지식론 — 인간지식의 기원과 한계, 범위를 탐구한다는 — 을 지향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쉽게 드러난다. 그의 관심은 개별자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2실체, 즉 종의 본질이었다.¹⁵⁾ 그가 Essay에서 개별자나, 고유명사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는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 그는 ‘존재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들이다’라고 제3권 3장 1절의 처음에 쓰고 나서, 고유명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자세히 논구했다. 그의 실재적 본질과 명목상의 본질을 구분하는 본질론도 그런 관심의 반영이다.

가정되는 ‘한 사물’이 무엇인가는 제2권 23장이, 실체일반에 대한 몇몇의 절들을 제외한다면 그 대부분의 나머지 절들이 개별적인 종의 실체관념에 대한 그것들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밝혀진다. 즉 그 ‘한 사물’이란, 반복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성질들이 그 안에 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 본질이다. 이 점의 확인을 위해서 23장 1절의 일부분을 다시 한번 인용하자. 아래에서 ‘일정 수의 이 단순관념들’이란 표현에 주목하라. 즉 특정한 성질들이 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한 사물이다. 뒤에 이야기되겠지만, 특정성을 띤다는 점이 개별 종의 실체관념이 실체일반의 관념과 다른 점이다.

……마음은 일정 수의 이 단순관념들이 항상적으로 함께 나타남을 주목한다. 이 단순관념들은 한 사물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되고……이 단순관념들은 한 주체에 있는 것으로 불려진다.(2, 23,1)

그런데 로크가 이런 ‘한 사물’을 가정하는 ‘마음’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이름짓기의 일의 담당자를 일상인들로 이야기한 점에 주의하면 우리는 ‘한 사물’, 즉 관찰대상의 성질이 속하는 본질이 있음을 가정하는 마음이란 일상인의 그 것으로 로크는 생각하였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럼 일상적인 경험수준에서 어떻게 본질을 가정케 되고, 이름을 붙이는가를 소박하게 그려보자.

우리가 관찰대상의 본질을 가정하는 가장 큰 동기는 이 세계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동일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물론 동일성, 반복성은 사건들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그

14) 기체는 substratum, 실체는 substance를 각각 옮긴 것이다. 그러나 ‘기체’와 ‘실체’는 그 원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역어들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15) 그러나 역시 특정종인 것들은 개별자들이다. 개별자 X—X를 고유명사라고 하자 — 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 X를 X하게 하는 것(X-rise)에 대한 암은 X가 속한 종에 대한 암을 포함하거나 적어도 연연가능해야 유의미하다. 삼손은 그가 인간임에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한에서 삼손이지, 킹콩이면서 괴력을 가졌다는 뜻에서 삼손인 것이 아니다.

러나 사건들의 반복성은 대상들의 본질에 조회되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자연의 법칙이란 두 사건들 간에 성립하는 것으로 말하곤 한다. 당위와 존재가 어떻게 구분되는가의 예로 흔히 드는 것이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라는 ‘자연법칙’이다. 그러나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법칙은 아니다. 지구의 공전주기와 태양과의 각도에 따른 일사량에 의한 온도의 증감—이런 것들이 자연의 법칙일 것이고, 이것은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사건들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러나 왜 지구는 그런 공전주기를 가지고 있고, 왜 일사량이 늘어나면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가?

이야기가 다소 빗나간 감이 드는데, 우리의 논의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 본질에 이름을 붙이는 상황을 살펴보자. 일반명사인 종명이, 단지 개별자들이 우연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여러 성질들의 공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자들의 동일한, 정된 본질에 붙여지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로크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말들은 인간에 의해 사용되었을 때, 고유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화자의 마음 안에 있는 관념들 이외에는 나타낼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은연중에 말들에게 두가지 다른 지시체를 부여한다.

첫째, 그들은 그들의 말이 대화중에 있는 상대방의 마음 안에 있는 관념들의 기호라고 가정한다…
…(3, 2, 4)

둘째, ……그들은 그들의 말이 사물의 실재성(reality)을 또한 나타낸다고 가정한다……(3, 2, 5)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 이름이, 성질들이 의존하는, 존재하는 사물의 불변의 참된 본질을 지시하며, 그것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사물의 종의 참된 본질에의 이 암묵적인 지시에 의하여 금이라는 말은……(3, 10, 19)

결론적으로 말해서 ii)에서의 ‘한 사물’은 가정되는 본질이다. 본질은 그 성격상 개별적이다. 인간의 본질과 침팬지의 본질은 구분되며, 서로 다른 것들이다. 일정 수의 특정한 성질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설명키 위해서 상정되는 본질은, 따라서 그 함께 나타나는 성질들의 덩어리 수만큼 있다.

그런데 이 본질들에 하나의 이름이 부여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앞서의 요약 iii)은 왜 본질을 가정하는가의 이유를 대고 있고, 요약 iv)는 가정된 본질이 기체나, 실체의 이름으로 불리게 됨을 말하고 있다. 성질들이 홀로 있을 수 없음, 그래서 ‘한 사물’을 가정하고 그것을 실체라고 부름, 우리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짧으나마 설명의 성격을 지니는 작업을 누가 하는가를 물을 수 있다. ‘한 사물’을 가정하는 마음의 작용과, 그 작용에 대한 설명, 그 한 사물에 일반적인 하나의 이름, ‘실체’를 부여하는 일은 별개의 것이다. 전자가 누구나 하는 일이라면, 후자는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다. 또한 이때 실체라는 이름으로써, 가정되는 ‘한 사물’을 부르는 것은, 개별화되어 있는 여러개의 ‘한 사물’들, 본질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오직 하나의 것이 있음을 주장하는 데로 나아가기 쉽다.(또는 그런 인상을 주기 쉽다.)

로크는 23장 2절을 ‘실체’라는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지는 것으로 쓰여지는가에 대한— 또는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채운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순수한 실체일반의 개념을 살펴보려 한다면, 그는 자신이 우리 안에 단순관념들을 산출할 수 있는 성질들을 떠받쳐주는 것,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에의 단지 가정

외에는 전혀 아무런 관념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발견케 될 것이다. 그 성질은 통상 우유성(accidents)이라고 불린다. 만약 누군가가 색이나 무게가 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음을 받으면, 그는 충전적이고¹⁶⁾ 연장된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그 충전성과 연장이 내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지면, 그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그 인디언보다 별로 더 나은 처지에 있지 않다. 그 인디언은 이 세계가 커다란 코끼리에 의해서 떠받쳐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코끼리는 무엇 위에 있느냐고 물으면 그는 커다란 거북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재차 그 등넓은 거북이를 떠 받쳐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선 그는 그가 모르는 무엇이라고 대답한다. 이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가 분명하고 판명한 관념을 갖지 않고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쉽게 그것을 무엇인가(something)이다라고 만족스럽게 대답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무엇인가는 사실상 그렇게 사용되었을 때 어른이 썼든 어린아이가 썼든 간에,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뜻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척하고, 말하곤 하는 것은 그에 대해 그들이 아무려한 분명한 관념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이고, 그에 대해 전적으로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명사인 실체를 부여하는, 우리가 가지는 관념은 단지 성질들의 가정된, 그러나 모르는 떠받침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성질들을 있는 것으로 발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그들을 떠받쳐 줄 것 없이 그것들이 훌륭 있을 수 없다고 상상한다. 우리는 그 떠받침을 실체라고 부른다. 이 말은, 그 말의 진정한 의의에 따르자면 쉬운 영어로 말해서 아래에 서 있음(standing under) 또는 지탱함(upholding)이다.(2, 23, 2)

위에서 실체는 색과 무게, 충전성과 연장이 내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강조되고 있는 점은, 실체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시하는 자는 그 자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가 아는 것은 자신이 실체를, 성질들을 떠받쳐주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점 뿐이다. 그에게 실체란, 아래에 서 있음, 지탱함의 의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인디언의 예는 2권 13장 19절에도 나온다. 여기서는 인디언이 실체라는 용어를 알고, 그를 사용할 줄 아는 유럽의 철학자(european philosophers)과 대비되어서 소개되고 있다.

일종의 있는 것들로서 내재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우유성이라는 개념에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 것들을 떠받쳐줄 실체라는 말을 찾아내게끔 되었다. 만약, 이 지구도 역시 그것을 지탱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고 상상했던 그 가련한 인디언 철학자가 이 실체라는 말만 생각했던 지구를 받쳐줄 코끼리를 찾고, 코끼리를 받쳐줄 거북이를 찾는 곤란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실체라는 말은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을 테니까. 물어보던 자도 그 인디언 철학자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실체가 지구를 떠받치는 것이다라는 대답을 흡족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유럽철학자들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실체가 우유성을 떠받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한 대답으로, 훌륭한 교의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말이다. 실체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아무 관념도 없이, 단지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관념만을 어렵듯이 갖고 있다.(2, 13, 19)

우유성을 떠받친다는 실체란 하나의 말, 그 떠받침을 수행한다는 기능을 나타내는 하나의 말이다. 사물의 본성을 탐구하는 영리한 미국인은 그러나 유럽철학자들의 대답을 조크로 여길 것이다.

16) 'solid'가 '충전적'의 원어이다. solidness는 hardness와 구분된다. 로크 자신은 impenetrability, resistance라고도 한다. 자세한 논의는 Essay, (2, 4) 참조.

학식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사물의 본성을 탐구하는 영리한 미국인은, 그가 건축물에 대해 배우고자 했을 때, 기둥이 한 기반에 의해서, 즉 그 기둥을 떠받치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떠받쳐지는 것이라고 설명받는다면 그는 그것을 만족스러운 설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런 설명을 듣고, 그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느낌 대신 조롱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초보자가 모든 박식한 책들은 종이와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종이 안에 글자들이 내재하며, 종이는 글자들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배웠다면, 그는 아주 훌륭하게 책의 본성에 관한 가르침을 받은 셈이다. 그런 설명의 방식은 글자들과 종이에 대해 분명한 관념을 갖게 되는 주목할 만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재함(*Inhaerentia*), 실체(*Substantia*)라는 라틴어가, 그에 상응하는 쉬운 영어로, 붙어있음(*Sticking on*)과 아래에서-지탱함(*Under-propping*)으로 옮겨지면, 이 말들은 실체-우유성의 교의에 있는 매우 현저한 분명함을 발견해 해주고, 그것들의 철학의 문제들의 해결에 어떤 소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2, 13, 20)

'내재한다(*inhere in*)'은 두 개의 관련항을 가지는 관계어이다. 그런데 로크가 보기에도 우유성이 실체에 내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관계항인 실체를 끌어들임으로써, 거의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실체는 우유성이 내재하는 무엇인가를 묻는 일의 무한소급을 막기 위해 철학자들이 유용하게 쓰는 철학적 전문용어이다. 이러한 실체라는 말에 대한 그의 비우호성을 보여주는 다른 언명들을 보자.

만약 물체가 없는 공간이 실체인가, 우유성인가라고 내게 물으면 나는 모른다라고 쉽게 대답하겠다. 내게 그렇게 물은 사람들이 내게 실체의 분명한 관념을 보여줄 때까지 나는 나의 무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2, 13, 12)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말들을 사물들로 간주하는 저지르기 쉬운 오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명백하고, 분명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가진 체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이름들은, 그것이 고정된 관념들의 기호가 되고,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물의 본성을 변경시키지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끔 하지도 못한다. 나는 실체라는 2음절에 그토록 많은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과연 그 말을 무한하고, 파악할 수 없는 신에게, 유한한 정신에게, 사물에게 적용할 때 그 말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지, 이 너무나 다른 존재들이 실체들이라고 불리울 때, 그것들이 동일한 관념을 나타내는지를 묻고 싶다.(2, 13, 18)

그런데 우리는 로크의 이 비우호성이 과연 공평한 입장에서 표명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가 유럽의 철학자들이라고 부른 스콜라철학자들이 단지 '말'에 불과한, 철학적인 문제들에 대답하기 위해 도입된 그런 실체개념을 주장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그럴듯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실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일까? 그들은 색과 무게, 더 나아가 충전적이고 연장적인 부분들이 내재하는 것으로서의 실체를 이야기했던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개별적인 힘은 개별적 사물에 내재하고—또는 준실체로 취급되는 표면(surface)에 내재하고, 얇은 영혼에 내재한다. 과연 스콜라철학자들이 충전적이고 연장적인 부분들이 내재하는 다른 무엇을 제시했는지는 의심스럽다. 부분들은 성질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이 내재하는 다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색과 무게가 충전적이고도 연장된 부분들에 내재한다'라는 대답은 최후의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로크는 옹호될 여지를 갖고 있다. 그는 사실 ‘충전적이고 연장된 부분들’이 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던 것이 아니라, ‘충전성과 연장’이 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만약 누군가가 색이나 무게가 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음을 받으면, 그는 충전적이고 연장된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그 충전성과 연장이 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지면……(2, 23, 2)

그러면 왜 로크는 교묘하게 말을 바꾸면서 그가 비난하는 스콜라철학자들도 그 의의를 인정치 않을, ‘충전성과 연장’이 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것일까? 이에는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로크가 그런 물음을 제기하고, 그 물음에의 대답으로 실체를 내놓는 의도는, 우유성이 실체에 내재한다라는, 스콜라철학의 전체구도라고도 칭할 만한 실체—우유성이라는 개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의 한 예를 보여주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로크는 우유성이란 말과 함께 ‘성질들’을 사용하고, ‘내재한다’라는 말과 나란히 ‘의존한다’ 또는 ‘흘러나온다’라는 말을 쓴다. 색은 입자들의 1차성질인 충전성과 연장 등에 의존하며,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충전성과 연장은 1차성질로서 그에 2차성질이 의존하는 바의 것이다. 1차성질이 또다시 무엇에 의존한다는 것은 로크 자신의 1·2차성질의 구분이 갖는 의의와 배치되는 사고이다. 따라서 ‘충전성과 연장이 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로크의 것이 아니며, 위에서 보듯이 스콜라철학자들의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실체—우유성의 개념들을 극단화시킬 때, 즉 모든 실체 아닌—즉 제1실체도, 제2실체도 아닌 범주들을 우유성으로 돌리고 그것들 모두가 내재할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실체로 말하는 것 이게 될 것이다. 이 때의 실체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텅빈 관념이다.

나의 견해와는 반대로, 그러나 Essay 제2권 23장 .2절에서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는 두가지 견해들이 있다.

하나는 2절에서의 실체는 다름 아닌 물질(matter)을 가리킨다는 입장이다. 모든 우유성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우유성으로부터 독립해서 그 자신은 아무 성질도 가지지 않고서 있을 수 있는 물질이 2절에서 그려지는, 실체라는 일반명사가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 입장은 주장한다. 알렉산더(P. Alexander) 같은 이가 이 입장의 지지자인데, 그에 따르더라도 로크가 이런 물질개념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모든 성질로부터는 아니지만 따라서 특정한 성질들을 지녀야 되지만, 그 특정성질들을 뺀 나머지 성질들로부터는 독립해서 있는 물질을 로크는 옹호하고 있고, 이 물질개념이 로크가 2절에서의 실체개념 대신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2절에서의 실체가 물질이라고 할 경우에, 그렇게 모든 우유성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서 쉽게 떠올려지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이다. ‘형이상학’에서, 그는 실체라는 말이 적용되는 4가지의 대상들—본질, 보편자, 유, 기체가 있음을 말하고, 질료가 어떻게 그 자신이 말하는 실체로 간주될 수 없는가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방금 실체의 본성을, 한 주체의 술어가 되지 않고,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에 술어가 되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문제를 단순히 이렇게 말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이런 견지에선 질료가 실체가 된다……모든 다른 것들이 떼어졌을 때, 분명히 질료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질료에 의해서 나는 그 자체로 개별자도 아니고, 어떤 양을 지닌 것도 아니고, 있음이 규정되는 다른 어떠한 법주에도 할당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따라서 궁극적 기체는 그 자체로는……달리 궁정적으로 성직자워져 있지 않나. 그러나 이것들의 부정이지도 않다. 왜냐하면 부정이란 오로지 우연적으로만 그것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⁷⁾

또 하나의 입장은, 2절의 실체개념이 바로 로크 자신의 것이라는 에이어즈(M.R.Ayers)의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어느 스콜라철학자가 예의 그 물음에 사실상 대답을 하고 있으며, 로크가 비난하는 바는 그 스콜라철학자가 그 자신 중대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는 점이라고 한다. 즉 그 대답은 불충분하며, 정보가치가 없다는 점에서는 비난되나, 예의 물음과 그 대답의 시도 자체의 정당성은 보존된다. 이 입장은 로크 자신이 보다 정보가치가 많은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상의 두 견해들에 관해서는 개별종의 실체관념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된다. 나의 입장은 실체일반의 관념과, 개별종의 실체관념을 분리하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다.

다. 개별종의 실체관념

‘개별종의 실체관념에 관하여’라는 소제목이 붙은 Essay 제2권 23장 3절의 서두는, 실체일반의 관념과 개별종의 실체관념에 대한 로크의 태도차이를 명확히 드러낸다.

실체일반의 불분명하고 상대적인 관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인간의 감관과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함께 있는 것으로 주목되어지고, 따라서 그 실체의 개별적인 내적구조, 또는 알려지지 않은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으로 가정되는, 그와 같은 단순관념들의 결합체들을 모음으로써 개별종의 실체관념들을 가지게 된다……(2, 23, 3)

만약 로크가 위의 문장에서 개별종의 실체관념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완전하게 말하려 했다면, 그의 의도가 소망스럽게 달성된 것 같지는 않다. 문장의 후반부, ‘그 실체의 개별적인 내적구조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으로 가정되는……개별종의 실체관념들을 가지게 된다’는, 이미 개별화되어 있는 가정된 내적구조, 또는 본질을 전제하고 있고 따라서 이미 어떤 한 종명으로 불리는 개별자들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후반부의 그 ‘실체’가 특정 종명으로 불리우는 것들임은 다음의 인용을 통해 더욱 더 뚜렷해진다.

……우리가 말(馬)이나, 돌에 대해 가지는 관념은 우리가 말 또는 돌이라고 부른 것 안에서 함께 묶여 있는 것으로 발견하곤 하는 감각적 성질들의 몇몇 단순관념들일 뿐이다……(2, 23, 4)

17) Aristotle, Metaphysics, 7, 3, 1029a 5~25참조. 아リスト텔레스의 질료가 과연 오늘날의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를 사실적으로 이루는 것—즉 물질을 가리키는 것인지, 단지 인간의 사고현상이나 언어현상 등의 인지적 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적인 설명의 틀인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이 감각가능한 성질들은……그가 태양이라 부르는 그것 안에 있다.(2, 23, 6)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전제된 부분은 앞서 본 1절의 서술부분이다. 본질을 가정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과 이 작업이 이미 행하여지고 난후에 개별자들을 그 이름으로 부르고, 그것들 안에서 발견되는 성질들을 그 개별종의 실체관념을 이루는 것으로 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또한 로크는 양자의 사이에 일반명사로서의 ‘실체’가 본질로서의 ‘한 사물’에 부여되는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3절의 모두가 ‘실체일반의 불분명하고 상대적인 관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임에 유의하자. 물론 이 유의의 가능한 하나의 귀결로서 우리는 위에서 인용된 3절의 부분이 실체일반의 관념이 개별종의 실체관념의 형성에 한 몫을 담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1절에서의 ‘한 사물’을 실체나 기체로 부르는 사람들로서 로크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스콜라철학자들이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개별종의 실체관념에 당연히 실체일반의 관념을 끌어들일 것이며, 따라서 1절의 설명부분, 2절의 일종의 추론과정—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거쳐 3절의 개별종의 실체관념에 2절의 실체관념을 포함시키는 사람들은 일상인들이 아닌, 그들 스콜라철학자들이다. 1절의 후반부와 2절에서 그려진 ‘철학적’인 사고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 과정의 정당성에 의혹을 품는 사람들이 개별종의 실체관념에 2절의 실체관념을 포함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그들은 1절의 서술부분과 지금 이야기되는 3절의 과정을 거쳐 개별종의 실체관념을 얻는다.

(3절의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인간, 말(馬), 금, 물 등의 관념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실체들에 대해서 누구라도 함께 있는 어떤 단순관념들을 넘어서 다른 분명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경험에 호소하겠다. 쇠 또는 금강석이라는 실체들의 참된 복합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쇠에서, 또는 금강석에서 관찰가능한 일상적인 성질들이다. 이 성질들은 철학자보다도 대장장이나 보석상이 더 잘 아는 것이다. 철학자는 그 자신이 실체적 형상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더라도 이 실체들, 쇠와 금강석이라는 실체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단순관념들의 집적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이외의 다른 실체관념을 가지지 않는다.(2, 23, 3)

개별종의 실체들에 관해 일상적 경험에서 관찰하는 성질들 외에 다른 어떤 분명한 관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로크의 언명은 그가 ‘가정’에 대해 지녔던 태도를 시사한다. 2절의 실체든, 3절의 개별적 내적인 구조 또는 알려지지 않은 본질이든 모두 가정되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로크가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사물의 성질들 뿐이다’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이 생긴다 뒤에서 보겠지만 로크는 나름대로의 본질주의자였다. ‘모르는 것’으로서 설정된 그의 본질은, 그가 베클리와 같은 관념론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베클리는 자신의 주장이 이 세계에의 어떤 사물들의 존재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의식내에 그대로 살릴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무엇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의식 내에 관념으로서 있고, 그것이 관념으로서 있는 이상,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다.

그러면 로크에게서 본질이란 우리가 끝내 모르는 것일까? 그의 본질주의가 그의 인식론과 결합한다면, 그 대답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본질을 영원히 모른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질과 성질을 구분하고 우리가 대상에 대해 얻는 관념은 단순관념, 즉 그 대상의 성질들 뿐이 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본질이란 언제나 우리의 앞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질과 성질의 구분은 제한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보통 우리는 주어에 대해 술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성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가 무엇을 이러저러하다고 기술할 때, 그 이러저러함이 일상생활의 일상경험에서 얻어지지 않는 내용인 경우—예를 들어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발견한 것일 때—그것이 성질의 범주인지는 의심스럽다(아리스토텔레스의 종차(differentia)도 그런 예의 하나일 수 있다.¹⁸⁾ 비록 그 유효성이 의심스럽다고 해도). 로크에게서도 그가 일상 경험적 수준에서의 성질들을 한편에 두고 다른 한편에는 비일상적인 수준에서의 성질들을 두고 있음이 발견된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미시적인 입자들의 성질들, 1차성질들이다. 물론 이에는 이런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거시적인 사물의 성질을 설명하는 데에, 미시적인, 그 사물의 입자들의 성질이 쓰여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입자들의 성질이 그 사물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로크는 입자들의 배열구조가 그 사물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질을 그 사물의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물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본질과 성질은 그것의 주체가 동일한 것일 때 그 구분의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위의 반론의 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여기에는 우리의 흥미를 끄는 대목이 있다. 만약 거시적인 사물을 미시적인 입자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것이 옳다면—이에는 이 세계가 그 기초단위인 크기와 형태를 지닌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과히 그럴듯하지 않은 가정이 옳다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마지막의 단위들로 설정된 입자들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에게 모르는 채로 남을 거라는 사실이다. ‘입자들의 본질’이란 표현이 타당하다면 말이다. 궁극적인 주어의 역할을 할 입자들—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이와 같은 이해의 방향은 3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로크의 3절에서의 실체개념이—혹은 Essay 전체의 실체개념이—어떤 술어들에 의하여 말하여지는 주어—그것이 미시적인 입자를 가리키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를 뜻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심는다.

(3절의 계속) 오로지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실체들의 복합관념들은 그것들을 이루는 모든 단순관념들 외에 언제나 그 단순관념들이 속하고 그 안에서 내재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던지 우리는 그것을 이 러저러한 성질을 가진 것(a thing having such or such qualities)라고 말한다. 마치 물체를 연장되어 있고, 형태를 지니고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영혼을 사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연자석(a loadstone)에서 딱딱함, 부서지기 쉬움, 쇠를 당기는 힘 등이 발견되는 성질들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그리고 이에 유사한 말하기의 방식은 실체가, 연장, 형태, 충전성, 움직임, 생각함 또는 다른 관찰가능한 관념들 외에 항상 가정되는 무엇임을 시사한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름에도 말이다.(2, 23, 3)

18) 아리스토텔레스는 *Categories*에서 종차(differentia)는 성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two-footed는 사람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Categories, 3a 21). 그런데 two-footed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유리한 예이다. 우리는 언뜻 ‘두발로 있음’이 사람안에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람의 신체는 두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two-footed는 사람의 외연확정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는 듯이 보인다. ‘어렸을 때는 네 발, 커서는 두 발, 늙어서는 세 발’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모르는 것'으로서 남을 주체를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이러저러한 성질을 가진 것'과 연결시켜 동일시해버리면, 다음과 같은 기치(P.T.Geach)의 주장이 가능하다. 그는 로크의 실체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의 이해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쓴다.

그 때, '사람'에 의해서 뜻해지는 실체는어떠한 속성어로도 뜻해지지 않는 다른 무엇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로크의 실체개념에 감염된) 로스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한다. "성질은 의심할 바 없이 실체없이는 있을 수 없다.....그러나 실체 역시 성질 없이는 있을 수 없다.....실체는 성질들, 관계들 등등의 그것의 본질을 이루는 것들의 전체이다."¹⁹⁾

그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가 로크에게서 본 무의식적인 전제, 즉 우리가 한 사물을 그것이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확인함이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에 바탕을 둔다.....그때 그 사물은 그 자체로는 아무 성격도 지니지 않는 완전히 신비한 것(entity)이 된다.....²⁰⁾

기치의 위의 주장은 '개체들의 명목상의 본질은 없다'는 그의 '로크의 독트린'과 연결된다.

.....이것은 당신이 고유명사 A의 호칭을 듣고서 'A'가 인간의 또는 화식조의 이름인지가 미리 결정됨이 없고서도 언제 'A'를 다시 사용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마치 동일하게 이러저러함(the same such-and-such)이 없이, 동일한 한 사물이 있다는 듯이. 이것은 분명히 틀렸다.²¹⁾

그럼 이런 기치의 로크 이해가 올바른가를 두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3절의 주석적 근거를 떠나서 로크의 다른 인식론적 전제들과 기치의 이해가 조화 가능한가를 보겠다.

첫째, 기치는 동일한 어떤 종임이 없이 동일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물론이다. 만약 한 개별자가 어떤 한 종이라는 판단이 바로 그 개별자의 '본질'을 그대로 파악함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개별자는 그의 존속기간 동안 그 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개별자가 어떤 한 종에 속한다는 판단은 틀릴 수 있다. 이 틀린 판단에 상관없이, 그러나, 그 개별자는 그 자신의 본질을 동일하게 가질 것이다. 본질주의자인 아리스토텔레스나 로크는 모두 이 점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판단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 그 개별자가 그 종에 속한다는 우리의 앎도 그대로이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 그 개별자는 그 종으로서 동일성을 유지한다. 로크가 실재적 본질과 명목상의 본질을 구분하려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예수는 인간이었을 수도 있고 신이었을 수도 있고 인조인간이었을 수도 있다. 예수가 모종의 특정 종에 속했음은 틀림없으나——신이나 인조인간의 경우에도 종이라는 것이 있다면, 아니 더 타당하게 신의 경우에는 단일종의 유일한 개별자라고 하는 편이 더 옳겠다.——따라서 그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 그 종으로서의 자기동일성을 유지했었음도 틀림없으나, 우리가 모두 그가 인간이었다는 데에 찬성하거나, 신이라는 데에 찬

19) G. E. M. Anscombe & P. T. Geach, p.11.

20) 같은 책, p.10.

21) 같은 책, p.8.

성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우리의 검토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점으로서, 로크가 한 사물의 이름을 그 사물이 어떤 종에 속함을 모르고서도, 또는 그 종으로서 확인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지금 내가 'A'라는 고유명사를 들었다고 하자. 만약 어떤 고유명사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고유명사가 지시하는 개별자를, 그 고유명사를 사용해서 지시한다는 인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고유명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그 개별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알아야 하는 정보의 양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단순히 그 이름을 대화 중에 어떤 종으로서 등장시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A는 사람이다', 또는 'A는 새이다'라는 것만을 알고서도 대화중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A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보가 필요하다. A가 특정 종에 속한다는 것을 넘어서 다시 그 개체를 특정해서 지시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경험론자인 로크가 개별자의 확인의 문제에서만 신비주의자가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가치가 로크를 전적으로 왜곡시켰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가 너무도 문자 그대로 로크의 주장을 읽었다는 데에, 그리고 로크의 다른 주장점들과 유리시켜 한두 개의 표현에 집착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치가 비난하는 '신비로운 것'은 2절의 실체 개념에 근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3절에서의 '이러저러한 성질들을 가진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따져보자. 로크는 '이러저러한 성질들을 가진 것'을 우리가 어떤 개별종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 방식의 예로 '딱딱함, 부서지기 쉬움, 쇠를 당기는 힘 등등이 천연자석에서 발견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뒤이어서 그가 하는 진술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이에 유사한 말하기의 방식은 실체가 연장, 형태, 충전성, 움직임, 생각함 또는 다른 관찰가능한 관념들 외에 항상 가정되는 무엇임을 시사한다. 우리가 그것이 무언가를 모름에도 말이다.(2, 23, 3)

위의 인용문에서 실체는 '관찰가능한 관념들' 외에 가정되는 것이다. 천연자석의 딱딱함이나 부서지기 쉬움, 쇠를 당기는 힘 등도 모두 일상적으로 관찰가능한 성질들이다. 그럼 이 성질들이 천연자석에서 발견된다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이 성질들 외에 가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로크에게는 이렇게도 물어질 수 있다. 어떠한 성질들이 X라는 종명으로 불리우는 것에서 발견된다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X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지금 저기에 있는 저것을 가리키는가? 물론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다. 그럼 'X'와 '이 X'라는 표현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깊이 들어갈 것 없이, 로크는 앞서 인용한대로, 우리가 하나의 종명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종명이 사물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전제한다고 말한다. 관찰가능한 성질들 외에 가정되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이다.

.....사실상, 실제의 실제적 본질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단지 그들의 존재를 가정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종에 연결시키는 것은 명목상의 본질이다. 실제적 본질은 명목상의 본질의 가정되는 원인이고 기초이다.(2, 6, 6)

3절에 이어 4절을 보자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말(馬), 들과 같은 개별종의 실체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는 관념들이란 말이나 들로 불리는 것들에서 우리가 발견하곤 하는 몇몇의 단순관념들의 집적이나 복합체 일 뿐임에도 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흘로 있는가 또는 서로서로에 내재해 있는가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어떤 공통된 주체 안에 있고, 그것에 의해 떠받쳐짐을 가정한다.(2, 23, 4)

위에서의 ‘공통된 주체(common subject)’는 다음에도 등장한다.

……의 단순관념들……그들을 모두를 그는 그 알려지지 않은 공통된 주체에 있고, 그것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2, 23, 6)

‘공통된’은 함께 관찰되는 성질들에 ‘공통된’의 뜻이다. ‘모든 성질들에 공통된’, 또는 ‘모든 종에 공통된’의 뜻이 아님은 ‘주체들’이란 표현이 나오는 다음을 보면 뚜렷하다.

……그 힘들은 천연자석과 쇠라는 이 주체들에 내재하는 성질들로 통한다.(2, 23, 2)

요약해서 말하자면, 3절에서 가정되는 무엇은 ‘무엇들’일 수 있는 것, 개별화되어 있는 것, 관찰가능한 성질의 기초이자 원인으로 가정되는 것, 즉 본질이다. 만약 3절에서 가정되는 그 무엇이 기초의 말대로 아무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신비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복수형으로는 칭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로크의 실체라면 로크에게서는 개별종의 실체들이란 표현은 자기모순적인 그것이 될 것이다. 그 자신이 아무 성질도 없으면서, 그것은 어떻게 다른 것과 구분되겠는가? ‘이 실체’나 ‘저 실체’라는 표현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의 실체 —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하나의 실체뿐일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본질과 성질의 구분이라는 문제에 직면케 된다. 이제까지의 우리의 이해는 로크가 ‘성질들은 본질에 내재한다’, 또는 ‘본질은 성질들을 떠받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로크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앞서 각주2)에서 로크가 ‘내재한다’는 표현을 시종일관 존재적인 차원에서 사용했다고 썼는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을 읽어보자.

……본질이란 말의 몇몇 의미를 살펴보는 일은 부질없는 일이 아닐 것이다.

첫째, 본질은 모든 것의 바로 있음,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 그 있음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하여 실체들의 실재상의 내적이고, 일반적인 사물들의 구조, 그것들의 발견가능한 성질들이 그에 의존하는 그 구조는 그것들의 본질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의 고유한 원래의 뜻이다……. 본질(essentia)은 제1차적인 뜻으로 고유하게 있음(Beng)을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자의 본질을 어떤 이름의 부여없이 말할 때, 이런 의미로 본질이란 말을 여전히 사용한다.

두번째로, ……일상적으로 개별종의 사물들의 가정된 실재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함께 있는 단순관념들의 어떠한 집적체라도 의존해야만 하는 어떤 실재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도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2, 3, 15)

흔히 우리는 본질을 관념적인 형태의 것, 즉 특정의 사물에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진 것,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어느 정도는 진실이다. 어느 멋진 건축물의 구조나, 정삼각형의 형태는 우리가 머리 속에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이고, 현존하는 어떤 특정의 사물의 존재 유무와는 상관없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어떠하겠는가? 소크라테스가 대화편 ‘파르메니데스’에서 인간이나 물, 불의 경우에도 이데아가 있느냐는 파르메니데스의 물음에 주저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이 세상 — 정확하게 말해서 인류가 이제까지 살아온 지구에서는 수많은 생물들이 출현했고 또 절멸해갔다. 공룡은 절멸했다. 공룡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생존치 않게 되었을 때, 인간의 본질은 ‘있는’ 것일까?

본질을 관념적인 것, 이데아로서 있는 것에서 끌어내려서 실재로 있음의 마당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본질이 성질들을 떠받쳐주고 있고, 성질들이 본질에 내재한다는 로크의 존재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성질들을 관념적인 것으로 끌어올려서 관념적인 것으로서의 본질과 관계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데아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고 역시 이데아로서의 인간의 여러 성질들을 각기 상정하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이데아들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성질들 — 인간임을 판별해주는 성질들, A, B, C 등이 있다고 하자. 이데아들의 세계에서 곤란한 점은 이데아로서의 인간이 왜 하필 그 A, B, C라는 이데아로서의 성질들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물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인간이 실재로 성질들 A, B, C를 가지고 있음은 사실적인 관계이며 — 관계라는 표현이 허용된다면 — 왜 사실적으로 인간이 A, B, C의 성질들을 띄게 되는가라는 물음은 무의미하다. 만약 우리가 이야기를 바꾸어서 이데아의 세계에는 이데아로서의 인간과 이데아로서의 인간적인 성질 A, 이데아로서의 인간적인 성질 B, 이데아로서의 인간적인 성질 C 등이 있어서 이데아로서의 인간이 이데아로서의 인간적인 성질 A, B, C 등과 관계맺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한다고 하자. 그러나 이는 이미 복합적인 이데아 — 이데아로서의 인간적인 성질들 A, B, C라고 하는 — 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과연 이데아의 세계를 따로 설정하는 것이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라는 반문을 하게 한다. 지금 있는 이 세계를 설명키 위해서, 이 세계와 너무도 흡사히 짙은 다른 한 세계를 상정한다는 것은 별로 유익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플라톤의 이데아논제를 공격한다는 것이,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나아가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다. 바로 좀 전에 인용된 부분에서 로크는 본질의 제1차적 의미를 개별자의 내적 구조, 가정된 내적 구조라고 말한다. 이 때의 ‘내적 구조’를, 마치 거대한 성당건물의 건축도면 쪽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그것은 건축도면이 아니라 벽돌과 모르타르와 강철과 유리와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로크가 입자설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적용시킨다면, 내적구조란 입자들의 배열구조이다.

만약 우리가 물체들의 감각가능한 성질들이 의존하는 물체들의 미세한 입자들, 그리고 실재적인 구성을 분간할 만큼의 날카로운 감관을 지녔다면, 나는 물체들이 우리 안에 전혀 다른 관념들을 산출함을 의심치 않겠다……(2, 23, 11)

……만약 그와 같은 현미경적인 눈의 도움으로…… 한 사람이 보통 이상으로 물체들의 비밀스러운 구성과 근본적인 짜임새를 투시할 수 있다면……(2, 23, 12)

입자설은 로크가 본질을 탈이데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셈이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그의 본질은 가정되는 것으로서 사물의 내적구조이며, 이 때의 본질은 현존성을 떤 본질이다. 이 본질에 성질들은 내재한다(가정되는 것은 본질의 존재가 아니라, 그 본질의 양태이다). 또한 로크는 입자설 위에서 본질을 입자들의 구조로 설명함으로써 그에게 본질은 ‘모르는 것’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가설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이었다. ‘비밀스러운’ 것이긴 해도, 그것이 원칙적으로 인지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신비한 것’은 아니다.

본질과 성질의 논의는 뒤로 넘기고 다음에선 이제까지의 나의 해석과는 대조되는 몇개의 가능한 이해방향을 검토하겠다.

라. 다른 견해들

우선 이미 짧게나마 언급했던 알렉산더와 에이어즈의 견해들을 보자.

2절에서의 실체가 물질을 가르킨다는 알렉산더의 견해는 버클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버클리는 로크가 우유성을 떠받친다는, 모든 우유성으로부터 떨어진 실체일반을옹호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포된 의견에 대해 잠깐 검사해 보자. 연장은 물질의 한 양상, 또는 우유성이라고, 그리고 그 물질은 그것을 떠받치는 기체라고 말해진다. 나는 당신이 물질이 연장을 떠받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를 설명해주기를 요구하겠다. 당신은 말하기를 나는 물질에 대한 관념이 없고 따라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나는 그럼 당신이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어떤 의미를 도대체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최소한 물질의 상대적인 관념을 가져야만 한다고 대답하겠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름에도, 당신은 그것이 그것들을 떠받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여야만 한다. 떠받침이 여기서 기둥들이 건물을 떠받친다라고 말할 때의 일상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취해질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그럼 무슨 의미로 취해져야 하는가?

……물질적 실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일반적이다라는 관념과 함께 그것이 우유성을 떠받친다라는 상대적 개념 이외에는…… 나는 그것들에 부여되는 어떤 판명한 의미란 없음을 확신한다.²²⁾

오늘날의 로크 연구가인 알렉산더는, 그러나 버클리와는 다르게 로크를 비난하려는 의도 없이 로크가 2절의 실체일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다음의 로크의 고백을 실체일반의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체의 관념에 대한 것으로 본다.

나는 감각과 반성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가질 수도 없는, 그러나 인류가 가진다면 일반적인 유용함을 가지게 될—마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진 것처럼, 그것이 일반적인 용어인 것과 같이 한 관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겠다. 만약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관념들을 공급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실체관념이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우리 자신에게 만들어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관념일거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다른 관념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가져와지는 방법들에 의해서는 이 관념이 가져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분명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실체라는 말에 의해서 단지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의 불확실한 가정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뜻하지 않는다는 것(즉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개별적이고도 분명한 긍정적인 관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 관념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관념들의 기체 또는 떠바침으로 받아들인다.

22) Berkeley, Principles, (1, 16~17).

(1, 4, 18)

알렉산더는 로크가 3판까지의 표현, ‘그것에 대해 우리가 아무 관념도 가지지 않는’을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개별적이고도 분명한 긍정적인 관념을 가지지 않는’으로 바꿨음을 주목하고는 이렇게 묻는다.

……왜 로크는 실체의 분명한 관념을 갖는 것이 ‘인류에게 일반적인 유용함’이 될 것이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실체일반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것의 분명한 관념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음을 알게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주장은, 로크는 실체란 무엇인가를 말함에 대해 나중에는 덜 비관적이게 된다는 것이다.²³⁾

그는 ‘유럽의 철학자’와 ‘인디언 철학자’의 등장 예에서 로크가 비난하고자 했던 것은 유럽의 철학자들이 실체라는 대답으로 무엇인가를 기술하고 설명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라고 한다.

……실체가 실재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는 열려진 문제로 남는다……그래서 유럽의 철학자들은 실체일반을 가정함에는 정당했을지도 모른다. 단지 그것에 관한 그들의 견해에 그릇된 점이 있었을 것이다.²⁴⁾

Essay2권 23장 1절의 인용 후엔,

……성질들은 그것들이 성격지를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로크가 여기서 우리가 기체를 상정함에 익숙해져 있음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음에 주목해야 한다.²⁵⁾

알렉산더는 2절의 예의 질문에서 충전성과 연장은 관찰가능한 그것들이 아니라고 한다.

……원래 질문이 관찰가능한 성질들을 떠받치는 것이 무엇인가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개별종의 실재적 본질이라 할지라도 물음은 그것을 넘어서고, 이 실재적 본질을 이루는 성질들을 떠받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련되게 되고 이에 대한 대답은 실체일반이다. 무엇보다도 만약 성질들이 논리적으로 떠받침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관찰가능한 성질들 뿐만이 아니라, 관찰 불가능한 성질들에도 적용된다.²⁶⁾

따라서 유럽의 철학자들은 관찰 불가능한 충전성과 연장이 내재하게 되는 것으로서의 실체를 대답하는 것인 셈인데,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한 사물’로—무엇인가(something)가 아닌—취급한다. 알렉산더는 바로 이것이 로크가 공격한 점이라고 한다.

23) P. Alexander, p.206.

24) 같은 책, p.203.

25) 같은 책, p.208.

26) 같은 책, p.212.

즉 그들은 실체를, 그것이 떠바치는 것으로 가정된 성질들 없이 그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로크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 보일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성질들도 실체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음이 결과되기 때문이다.

그는 로크의 다음을 인용한다.

……물질과 물체는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들 중의 하나는 불완전하고 다른 하나의 부분일 뿐이다.

왜냐하면 물체는 하나의 충전적이고 연장된, 형태지워진 실체를 나타내는데 반해서, 물질은 부분적이고 혼란된 개념이어서, 내게 물질은 물체의 연장과 형태를 뺀, 물체의 실체와 충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여진다고 여겨진다……그러나 충전성은 연장과 형태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을 그 이름 아래에 실제로 존재하는 무엇인가의 이름으로 간주함은……제일질료(Materia prima)와 관련한 불분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당론들과 논쟁들을 만들었다.(3, 10, 15)

알렉산더의 최종적 결론은,

……물질은 물질적인 물체들 내에서 특정한 형태와 크기, 그리고 가동성에 의해서 성격지워지는 충전적인 재질이다. 나의 제안은 이것이 바로 물질적 사물의 경우의 실체일반에 의해서 로크가 뜻한 것 이란 것이다. 물질은 무형태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충전적이기 때문이고, 이 충전성은 하나의 성질은 아니지만 물질의 본질적인 성격이다. 물질은 성질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충전적임은 모양과 크기를 가졌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²⁷⁾

알렉산더의 해석이 지니는 난점은, 로크가 두개의 ‘모르는 것’을 가정했었음을 귀결시킨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에 공통적인, 따라서 모든 성질에 공통적인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그 물질에 의해 떠받쳐지는 사물들의 각각의 내적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른다. —마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무규정적인 아페이론(apeiron)에 페라스(peras)가 가해져서 한 사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그러나 양자 모두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알렉산더에 대한 우리의 답으로 로크 자신의 말을 원용하겠다.

이름에 결부된 그와 같은 추상적 관념들이……본질들임은 우리가 본질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 짐을 들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명백해진다. 즉 본질들은 모두 비생성적이고 불멸적이다. 사물들과 함께 발생되고 소멸하는 사물들의 실재적인 구조들은 그렇지 못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 외에 모든 것들은 모두 변화를 겪는다. ……그래서 오늘 풀이었던 것이 내일은 한 양의 살이고, 얼마 후에는 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된다. 이 모든 변화, 이와 유사한 변화에서 분명한 것은 사물의 실재적 본질, 즉 그 구성, 사물의 속성들이 의존하는 그 구조는 사물들과 함께 파괴되고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들들과 연결된 관념들로 간주되는 본질들은 개별적 실체들이 어떤 변화를 겪더라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알렉산더와 부케팔러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인간과 말에 연결된 관념들은 그럼에도 동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래서 그 종들의 어떤 개별자, 또는 모든 개별자에게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종들의 본질들은 전적으로 보존되고 파괴되지 않는다. ……(3, 3, 19)

27) 같은 책, p.224.

다시 한번 로크가 말하는 실재적인 본질, 성질들이 그에 의존하는 본질이란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지적하자. 그에게 있어서, 사물의 내적 구조는 알렉산더가 물질이 담당한다고 주장한 그 역할, 즉 성질을 떠받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가정되는 존재의 층은 하나, 실재적 본질이다. 인용된 로크 자신의 말대로 '물질'이란 관념에 대응되는 무엇인가는 없으며, 물질은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관념일 뿐이다. 있는 것은 물체이다. 제일질료에 대한 로크의 비난, 그것은 있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이라는 수식어구를 붙이는 것이기는 하나, 물질이라고는 칭해질 수 없는 사물의 내적 구조라는, 또한 관념적인 것은 아닌 그것임을 생각할 때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

에이어즈는 알렉산더와는 대조적으로 2절에서의 실체를 로크의 실재적 본질로 해석한다. 1절에서 마음이 '한 사물'을 상정하는 것과 꼭 같게, 충전성과 연장이 내재하게 되는 것으로서의 실체가 대답된다는 것이다.

에이어즈는 2절의 예의 물음에서의 충정성과 연장을 관찰가능한 그것들로 본다.

……충전적이고 연장된 부분들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 미세한 부분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논의는 분명히 관찰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의 알려지지 않은 떠받침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로크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첫째는 색이나 무게가 충전적이고 연장된 부분들에 있다고 말함이 별 뜻도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비설명적이다. 그 사물이 왜 역시 어떤 색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지각가능한 충전성과 연장은 없다. 두번째는 지각가능한 충전성과 연장은 아마도 지각되지 않은 구조의 용어로 설명되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²⁸⁾

에이어즈는 실체를 '알려지지 않은, 규정가능한 무엇(unknown determinable something)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실체——이 경우가 바로 실체일반이라고 할 수 있다.——가 개별종의 실체와 존재적으로 구분됨을 부인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보일의 문장을 인용한다.

보일은 사실상 이에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변적으로 그는 종들의 원래적인 창조를 신의 직접적인 물질의 변용(modification)으로 들린다.

……신은 물질을 움직이게 하셨고(움직임은 물질의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역시 내 견해에 따르면, 물질을 사물들의 최초부터 여러가지 다양한 경우들도 이끄셨다.²⁹⁾

그러나 에이어즈는 왜 로크가 실체일반을 독립적으로 한 절로 다루고 있는가에는 유의하지 못하고 있다. 2절에서 3절로의 전환은 '실체일반의 상대적이고 불분명한 관념'이라는 어구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유사한 표현은 6절에도 나온다.

따라서 실체일반의 은밀하고 추상적인 본성이야 어떻든, 우리가 가지는 개별종의 실체들의 모든 관념들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결합의 원인에 있는 단순관념들의 집적체일 뿐이다…….(2, 23, 6)

마지막으로 1, 2, 3절 모두를 언어적 차원에서의 논의로 돌리는 입장이 있다.

28) M. R. Ayers, pp.89~90.

29) 같은 논문, p.93.

베네트(J.Bennett)는 로크의 실재성(reality)에 대한 이론과 실체관념의 논의를 분리시킨다.

로크는 실체개념을 이야기하는 한편, 실재론을 개진했다. 이 두 요소는 서로 맞물려서 버클리가 로크의 물질적 실체의 이론이라고 부르는 잡종의 원인이 되었다.³⁰⁾

그가 보는 로크의 실체개념은 성질의 담지자(property-bearer) 그것이다.

'내 손에 있는 펜은 비싼 것이다'라는 진술의 주어에 연루되어 있는 개념들은 무엇인가? 어떤 기술적 개념들의 목록에서도 빠져나가는 것은 ~인 것(thing which.....)의 개념이다. 이것은 F의 각 값에 대해서, F인 것(thing which is)이라는 개념의 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F의 값에 대해, 'F인 것'의 개념과 동일시될 수 없다. 모든 주어개념의 이 요소는 성질의 담지자의, 또는 술어가능한 주어의 개념이다. 이를 실체개념이라고 부르자. 따라서 어떠한 존재진술 또는 주어-술어 진술이 참이라면, 두 종류의 항목이 있다. 실체, 그리고 성질들 또는 속성들.³¹⁾

따라서 로크의 기체-실체는 어떠한 본성도 가질 수 없다. 실체들은 특정종류의 항목들일 수 없다. 만약 실체성을 정의하는 S임(S-ness)이라는 한 성질이 있다면, 이에는 다시 그 S임이 예화되는 다른 또 하나의 실체가 필요하게 될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들이 특정 종류의 항목들이라는 것을 부인함은 로크의 성질예화론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 이론의 전체 포인트와 이해관계는, 각 주어 개념은 성질들을 지탱하는 것이 그것의 권리와 의무인 한 종류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것에 놓여있다.³²⁾

베네트의 결론은 이러하다. '아마도 실체일반이라는 한 관념이 있다.'

오코너(D.J.O'Connor)는 로크의 실체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어-술어 논리에 기원을 둔 것이라 보고, 이는 '일상언어의 명사와 형용사, 동사의 구분에 출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³³⁾ 그의 결론은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심리학의 문제이다.'

그렇다. 우리가 실체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제1실체의 판별기준이 무엇인가는 각각의 언어상대적인 인지구조의 특이성에 조화되어서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로크가 개별종의 실체들로 예로 들고 있는 인간이나 금, 말(馬) 등이 특정의 언어에만 나타나는 종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베네트는 버클리의 오해를 지적했지만, 그 자신 또한 로크를 오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관심사가 이전의 시대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아니다. Essay 2권 23장은 우리가 인용했던 부분들을 뺀 거의 모든 나머지가 사물의 내적 구조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으며, 3권 6장 '실체들의 이름에 관하여'는 사실상의 로크의 본질론이라고 부를 만한 성격의 것이다. 본질이 어떤 존재적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이고 더군

30) J. Bennett, p.59.

31) 같은 책, p.60.

32) 같은 책, p.63.

33) D. J. O'Connor, pp.73~88참조.

다나 로크에게서의 실재상의 본질이 성질들의 원인이고, 기초라는 것이라면 로크가 Essay의 일부분에서 말한 실체개념이 왜 그 나머지의 내용들과 분리되어서 언어적, 심리적 문제에 키워되어야 하는가는 의심스럽다.

2. 두개의 본질 : 명목상의 본질(nominal essence)과 실재적 본질(real essence)

가. 개 요

개별종의 실체개념에서 가정되는 그 무엇, 즉 사물의 내적 구조, 실재적인 본질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말하여진 것 같다. 여기서는 그것을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명목상의 본질과 연관시켜 살펴보도록 하자. 앞으로의 이야기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대강의 그림을 그려보겠다.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실체관념을 보자.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라는 실체관념은 여러 단순관념들과 그 단순관념들이 흘러 나오는 내적 구조의 가정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 마음은 일정수의 단순관념들—성질들이 반복해서 나타남을 주목하고, 이 성질들에 공통된 주체를 상정한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로 이 내적 구조, 실재적인 본질을 가리킨다. 이제 개별자 A가 ‘사람’이라고 불리워진다고 하자. 이는 A가 사람의 실재적인 본질을 가졌다고 말하여짐과 같다. 그러나 로크는 A가 사람으로서 불리울 때, 그 말하여짐의 근거가, A가 사람의 실재적 본질을 가졌음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A가 사람이라는 실체관념에 포함된 단순관념들에 합치되는 성질들을 가졌음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즉 우리가 어떤 개별자를 어떤 종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 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험적 수준에서의 몇몇 성질들을 그 개별자가 가지고 있느냐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개별자를 그 종이에게 하는 것을 그 종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그 종의 본질은 단지 추상된 몇몇 성질이게 된다. 로크는 이런 종의 본질을 명목상의 본질이라고 부른다. ‘종의 본질은 명목상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가 종의 실체관념을 형성할 때, 실재적 본질을 놓게 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모종의 전제가 깔려 있다. 고정된 수의 본질이 있고 자연은 이를 모델로 해서 이에 맞게 개별자를 산출해낸다는 전제이다. 여기서 개별자의 종의 결정은 그 개별자가 분유함으로써 그 종이게 되는, 종의 고정된 본질에 따라서이다. 그런데 앞서 보듯 한 개별자가 한 종이게 되는 것은 명목상의 본질에 의해서이지 그 종의 실재적 본질에 의한 것도, 그 개별자가 그 종의 실재적 본질을 가짐에 의해서도 아니다. 로크는 이 지점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좀더 합리적인’ 실재적 본질개념을 등장시킨다. 실재적 본질이란, 개별자가 그 내부에 가지는 비지각적인 입자들의 구조이며, 이에서 흘러나오는 성질들에 의해서 우리는 개별자들을 서로 구분하고, 종들로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함이 ‘더 이성적’이라는 것이다.

로크도 물론 자연이 개별자를 서로 유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로크가 고정된 본질을 주장하는 스콜라주의자들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본질의 개념 아래에선 변종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과 우리들이 그런 본질을 알아서 그 본질에

따라 개별자를 종으로 분류하는가의 의문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로크의 주장에서는 가정되는 실재적 본질이 사실상 있느냐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만약 그 내적 구조에서 다른 개별자들을 몇몇 성질의 동일함으로 인해서 한 종으로 분류할 경우, 가정된 실재적 본질이란 단지 가정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적 구조가 동일한 개별자들을 종으로 묶은 경우에, 그 종의 가정된 실재적 본질은 사실상 있는 것이다.

나. 두개의 본질

실재적 본질과 명목상의 본질에 대한 로크 자신의 설명을 보면,

각 종의 기준과 경계는 그 개별종을 구성하고, 다른 종으로부터 구분시키는데, 우리는 이를 그 종의 본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본질은 이름이 붙여지는 추상적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관념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은 그 종에 본질적이다. ……나는 이것을 실체들의 실재적 구조와 구분짓기 위해서 명목상의 본질이라고 부르겠다. 이 명목상의 본질과 그 종의 모든 속성들은 실재적 구조에 의존한다. 실재적 구조는 ……실재적 본질이라고 불릴 수 있다.(3, 6, 2)

앞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용한 바 있는 다음을 보자.

……본질이란 말의 몇몇 의미를 살펴보는 일은 부질없는 일이 아닐 것이다.

첫째, 본질은 모든 것의 바로 있음,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 그 있음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하여 실체들의, 실재상의, 내적이고 일반적인 사물들의 구조, 그것들의 발견가능한 성질들이 그에 의존하는 그 구조는 그것들의 본질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의 고유한 원래의 뜻이다. ……본질(essentia)은 제1차적인 뜻으로 고유하게 있음(Being)을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자의 본질을 어떤 이름의 부여없이 말할 때, 이런 의미로 본질이란 말을 여전히 사용한다.

두번째로, 학교의 강의와 논쟁들이 유와 종에 열을 올린 덕택에 본질이란 말은 그 일차적인 의의를 잃어버리고 사물들의 실재적 구조의 의의 대신에 유와 종이라는 인위적인 구조물에 쓰여지게 되었다. 일상적으로 개별종의 사물들의 가정된 실재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함께 있는 단순 관념들의 어떠한 집적체라도 의존해야만 하는 어떤 실재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도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각 유 또는 종의 본질은 그 유명이 나타내는 추상적 관념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두 종류의 본질들을 나는 하나는 실재적 본질로, 다른 하나는 명목상의 본질로 과히 틀리지 않게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3, 3, 15.)

처음의 인용문에는 ‘한 종의 추상관념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은 그 종에 본질적이다’라는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뒤의 ‘개별자에겐 본질적인 것이란 없다’라는 다소 의외인 그의 주장과 연결된다. (아마 가치 같은 사람이 주의를 기울였을 의외성을 이 주장은 가지고 있다.) 우선 종과 유의 본질이라고 칭해지는 추상관념의 형성을 보자. 로크는 이 형성 과정을 사람의 예를 들어 여기저기서 여러번 소개하는데³⁴⁾, 그 글자는 우리가 몇몇의 관념들에서 그것에 수반되는 특정성의 관념들—시간, 공간, 기타의 특정성을 떤 상황 관념들을 떼어내서 그 몇몇의 관념들을 일반적인 그것으로 삼고 그에 종명이나 유명을 부여한다

34) Essay, (3,3,7~10), (3,4,26~27), (3,10,17) 등등.

는 것이다. 이 추상의 작업은 나분히 편의적으로 행해지며, 예의 사람이라는 추상관념 안에 포함되는 관념들의 수와 종류는 개인마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 상대성이 로크가 사물을 종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인간 지성의 소산물이라고 주장할 때 그 근거가 된다.

……만약 사람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추상관념이 자연의 고안물이었다면 몇몇 사람들마다 그 관념이 다를 수는 없을 것이고, 한 사람에게는 그 추상관념이 ‘이성적 동물’이고, 다른 한 사람에게 그것이 ‘넓은 손·발톱을 가진 이족의 깃털 없는 동물’일 수도 없을 것이다.(3, 6, 26)

그럼 무슨 의미에서 종이라는 추상관념에 포함된 모든 것은 본질적이고, 그에 반하여 개별자에게 본질적인 것은 없다는 것일까.

……우리가 개별자를 분류하는 그 추상관념을 치워 보라. ……이때 어떤 개별자에 어떤 것이 본질적이라는 생각은 사라진다. 우리는 추상적 관념 없이는 본질적인 어떤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는다. ……내가 나임은 필연적이다. 신과 자연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중 아무것도 본질적인 것은 내게 없다. ……따라서 내게 이성을 가진다는 것이 나에게 또는 어떤 다른 개별적 존재에게 본질적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말하겠다. ……그러나 그 개별자가,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복합관념의 일부분이 이성인 경우, 사람의 종으로 분류되고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 이성은 그 개별자에게 본질적이다.(3, 6, 4)

위에서는 ‘필연적’이라는 것과 ‘본질적’이라는 것이 구분되고 있다. 왜 내가 나임이 필연적이면서, 내게 본질적인 것은 없는가? 그러나 다음을 보면 이때의 ‘본질적’이란, ‘일상적 용법에서의’, 종과 관련된 그것을 가리킴이 드러난다.

……실제 있는 한 사물이 그것에 본질적인 어떤 것을 결여하고 있는지를 묻는다는 일은 어리석다. ……모든 그와 같은 유형들과 기준들을 제쳐 놓으면, 개별적 존재자들은 그들의 본래의 모습대로 고려되건대, 그들의 모든 성질들을 모두 동등하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음이 발견될 것이다. 각 개별자에게서 모든 것들은 모두 그 개별자에게 본질적인 것이 될 것이다. 아니, 좀더 참되게 말한다면, 모든 것들은 전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3, 6, 5)

로크는 유형들과 기준들——종과 유를 나누는 기준들을 개별자에게 입혀진 옷처럼 생각하고 있다. 덧입혀진 그 옷, 그 옷을 입음으로써 어떤 한 종으로 불리워지는 그 옷을 제거시켜라. 그리고 본질이란 말을 종에 관련시킬 것이 아니라 그 개별자의 수준에서 생각해보라. 그 개별자가 지니는 성질들 중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 과연 있겠는가? 그것들은 모두 개별자의 실재적 본질로부터 훌러나오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우리가 두개의 물체들의 미세한 구성 부분들의 모양, 크기, 짜임새, 움직임을 안다면, 우리는 실험하지 않고서도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가하는 작용들을 알 수 있음에 틀림없다. 마치 우리가 사각형이나 삼각형의 성질들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만약 우리가 대황, 독당근, 아편의 입자들의 기계적인 성질들을 안다면, 우리는 ……미리 대황이 사람에게 설사를시키고, 독당근이 사람을 죽이고, 아편이 사람을 잠들게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3, 3, 25)

……그러나 그와 같은 복합관념이 실제의 실재적 본질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물

체 안에서 발견하는 성질들은 그 복합관념에 의존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연역가능해야 하며, 그 성질들과 그것과의 필연적 관계는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삼각형의 모든 성질들이……공간을 포함한 세변이라는 복합관념으로부터 연역가능하듯이 말이다.(2, 31, 6)

그러나 대황에 특정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그 성분 때문에 대황이 하제로 쓰일 수 있음을 안다는 것은 다르다. 후자는 대황의 관계적 성질을 아는 것이며, 이는 실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로크가 사물의 내적 구조에 그 사물이 가지는 성질들이 의존해 있고, 따라서 그 성질들과 그것과의 관계가 '필연적' 관계라고 말한 것은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삼각형의 성질들이 삼각형의 정의로부터 연역가능하듯이, 아편의 구성성분들을 안다고 해서 아편의 성질들 모두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모르핀과 코데인이 사람을 잠들게 함을 알고, 모르핀과 코데인이 아편의 구성 성분임을 알아야 우리는 아편이 사람을 잠들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모르핀과 코데인에 마취성이 있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기하학적 깊이 얼마나 매력적인 깊의 표본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이다. 앞에서 우리는 로크가 사물의 실제적 본질을 관념적인 것이 아닌, 존재의 층위에서 생각함으로써, 성질들이 본질에 의존하며, 특정의 종의 실체가 특정의 성질들을 가진다는 사실을 살펴냈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물질적 사물의 본질을 삼각형의 그것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생각하는 로크를 만나게 된다. 분명히 로크는 이 지점에서 이론상의 부조화와 비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아마 우리가 로크를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너무나도 강한 본질주의의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한 사물의 모든 성질들——관계적인 성질조차 전부 사물의 본질로 어떤 식으로든 환원되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여하튼 로크는 본질과 성질들의 2분법을 지지했고, 이때의 성질들이란 일상적 경험 수준에서 관찰가능한 그것들을 말한다. 성질들은 본질에 의존하고, 따라서 이 성질들을 추상하여 얻은 명목상의 본질——우리가 일상적 수준에서 종을 나누는 데 그 기준으로 쓰는——은 실재상의 본질에 의존한다.

다. 두개의 본질의 불일치

그럼 이 작은 논문의 전체 주제인 로크의 실체,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상정되는 실체로 되돌아가자. 바로 앞의 나항에서 본 명목상의 본질과 실재상의 본질의 구분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는 실재상의 본질을 경험적 수준에서나 비경험적 수준——과학적 탐구의 수준 모두에서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모르는 것으로 상정되는 실체는 끝까지 모르는 것으로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것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알려고 하는 대상이 애초부터 우리의 인지형식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것, 우리가 가진 인지형식과는 다른 인지형식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을 모른다고도, 또는 어떤 인지형식에 의해서라도 변용되지 않은 대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르게는 우리의 인지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우

리에게 알려질 수 있으나 지금의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번째의 ‘모른다’의 의미가 그 대상이 언제까지나 모르는 것으로 남아있다는 것과 얼마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자신이 없다. 한 대상이 논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으나 사실적으로는 영원히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남아 있다는 말은 거의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안다’는 말은 특정의 인지자가 특정의 어느 시점에 ‘나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나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말할 때조차, 우리는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에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도래함을 전제로 한다.

명목상의 본질과 실재적 본질이 구분되는 다른 한 경우는 우리가 실재적인 본질을 알게 되더라도 그 본질이 일상적인 종의 분류에는 쓰여지지 않아서 명목상의 본질과 실재적 본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로크는 두가지 경우 모두를 이야기한다. 먼저 그는 우리의 감관능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재적 본질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체들의 미세한 입자들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물체들의 기계적인 성질들의 관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날카로운 감관이 없기 때문에……(2, 3, 25)

동시에 그는 이미 인용되었던 다음에서 우리가 실재적 구조를 분간하기에 충분한 날카로운 감관을 가질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물체들의 감각가능한 성질들이 의존하는 물체들의 미세한 입자들, 그리고 실재적 구조를 분간할 만큼의 날카로운 감관을 지녔다면, 나는 물체들이 우리 안에 전혀 다른 관념들을 산출함을 의심치 않겠다……(2, 23, 11)

……만약 그와 같은 현미경적인 눈의 도움으로…… 한 사람이 보통 이상으로 물체들의 비밀스러운 구성과 근본적인 짜임새를 투시할 수 있다면……(2, 23, 12)

결국 로크의 본질은 우리의 인지형식에 의해서 또는 인지형식의 적용범위가 확장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설령 지금 우리가 실재적 본질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명목상의 본질일 수는 없다.

실체들의 실재적 본질이 그것의 탐구에 열심히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발견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일반명 아래로 사물을 분류시킴이 사물들의 분명한 외관들 외에, 사물들의 내적인 실재적 구조에 의해 규제받을 것이라고 합당하게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어는 각 나라에서 학문 이전에 확립된 것이다. 따라서……다소간에 포괄적인 용어들은 자신의 출생과 의미를 평상적인, 학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부여받았다. 이들은 사물들을 감각가능한 성질들에 의해서 분류하고 이름짓는다……(3, 6, 25)

논리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라 해도 사실적으로 사물의 실재적 본질이 지금의 우리에게 모르는 것일 때, 로크의 입장에서는 그 사물에 관한 일반명제가 성립할 수 없다. 우선 그는 실재적 본질에 대한 두 견해들을 소개한다.

물질적 실체의 실재적 본질에 관련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두 견해가 있다. 하나는 본질이라는 말을 그들이 모르는 무엇에 대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견해인데, 그들은 일정 수의 본질들이 있고, 이에 따라 모든 자연물들이 만들어지고 자연물들이 그 본질들 중에 정확히 하나를 분유해서, 이 또는 저 종이 된다고 가정한다. 또 다른 하나는 좀더 합리적인 것으로서, 이 견해는 모든 자연물들이 그들의 비지각적 부분들의 내적인,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우리들이 그것들을 서로서로 구분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공통된 이름 아래 종들로 나누는 데 소용되는 감각가능한 성질들이 흘러 나온다고 보는 사람들의 것이다.(3, 3, 17)

다시 말해 전자의 견해는 종의 분류에 ‘알려지지 않은’ 실재적 본질이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종의 분류에 이용되는 것은 오직 명목상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후자가 전자보다 합리적인 이유는 전자가 첫째, 변종이나 한 종 내에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고³⁵⁾, 둘째, 구체적인 개별자가 어떤 한 종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³⁶⁾ 난점을 지니는 데 반해서 후자는 일정 수의 고정된 본질들을 가정치 않으므로 변종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고, 종의 분류를 추상관념에 호소하므로 구체적인 개별자의 종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견해는 다시 우리가 종의 이름으로서 무엇을 가리킨다고 보느냐의 두 견해와 각기 연결된다.

……첫번째, 실체의 이름들이 어떤 실재적 본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또는 저 종으로 되는 것으로 가정되는 사물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다.(2, 31, 6)

두번째로, 알려지지 않은 실재적 본질의 쓸모없는 가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실체들 안에서 함께 있는 것으로 발견되는 감각가능한 성질들의 관념을 함께 놓는 것에 의해 이 세상에 있는 실체들을 묘사하려고 힘쓴다.(2, 31, 8)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물체에 관한 일반명제를 성립시키지 못한다.

우선 첫번째 경우를 보면,

우리가 모르는 실재적 본질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들어진 종들의 이름들은 인간의 지성에 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와 같은 용어들로 이루어진 일반명제의 참에 대해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금이고 금이 아닌지 모르면서 이 또는 저 성질이 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어느 물질 덩어리가 이런 뜻에서 금인지 확신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우리가 모르는 실재적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즉 금의 실재적 본질이 어느 물질 덩어리에 있는지를 안다면, 그럼에도 우리가 이 또는 저 성질이 진실로 금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이 또는 저 성질이 우리가 그에 대해 아무 관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재적 본질과 필연적 연계를 가지는가를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4, 6, 5)

두번째 경우는,

……그러나 만약 금을 명목상의 본질에 의해서 결정된 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 경

35) Essay, (3, 3, 13), (3, 3, 17) 참조.

36) Essay, (2, 31, 6), (3, 3, 17), (4, 6, 5) 참조.

우에 무엇이 금이고 금이 아니지를 가름짓기는 힘들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명목상의 본질과의 사이에 발견가능한 연계나 모순의 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은 다른 성질은 보편적으로 금에 대해 확인되거나 부인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비휘발성은 다른 어떤 단순관념과……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필연적 연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우리가 ‘모든 금은 비휘발적이다’라는 명제의 진리를 확신하기란 불가능하다.(4, 6, 8)

……서로서로 간에 필연적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관념들 자체에선 연계는 발견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4, 3, 28)³⁷⁾

두 경우 모두에서 ‘필연적 연계’란 표현이 나오는데, 로크는 그러나 그러한 필연적 연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두 관념들간의 필연적 관계의 예로 ‘형태는 연장을 필연적으로 가정한다’, ‘충격에 의해서 운동을 주고 받음은 항상 필연적으로 충전성을 가정한다’를 들고 있으나 형태와 연장이, 운동과 충전성이 어떤 의미에서 각각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역시 설명이 없다.

우리는 앞서 개별자의 성질들과 실제적 본질은 ‘필연적’ 내지는 ‘본질적’인 관계에 있다는 로크의 주장을 보았다. 그런데 첫번째 경우에서 금의 실제적 본질이 어느 물질 덩어리에 있음을 알아도, 우리는 어떤 한 성질을 금에 대해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언명은, 이러한 앞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듯이 보인다. 만약 어떤 한 개별자가 진실로 어떤 한 종의 내재적 본질을 가지고 있음이 참이라면, 그 개별자에서 발견되는 모든 성질은 그 종의 본질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까?

로크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는 관념들 간의 연계와 일치, 또는 불일치와 모순의 지각’에서 성립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앎이란 최소한 두개의 서로 다른 관념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전제한다. 그런데 만약 사물의 실제적 본질이 우리에게 모르는 것으로 남아 있고, 그 본질이 우리에게 관념들의 형태로 떠오르지 않는 이상, 본질과 그 본질에 의존하는 성질들이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알 도리는 없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경우, 즉 한 종명으로써 그 종의 명목상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합의할 경우에도 우리는 정보가치를 주는 일반명제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로크의 말은 그가 다분히 비경험론의 입장에 서 있음을 나타낸다. 지식의 근원을 감각과 반성이라는 경험에서 찾았던 그가 지식의 한계를 함께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본질에의 불가지론적 태도와——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불가지론은 아니나——, 앎을 관념들의 ‘필연적’ 관계에 두려고했던 그의 합리주의적 태도의 양자에 있었다.

* 맷 음 말

우리는 앞서 로크의 실체개념을 둘러싼 몇가지 견해를 검토했고(1장), 그의 실체와 실제적 본질을 연결시켜 파악했다(2장). 우리가 택한 해석이 가지는 장점은 로크의 텍스트를 보다 일관되고 유기적인 것으로 살펴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장점만이 우리를 정당화시

37) Essay, (4, 3, 3, ~16) 참조.

키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에 근거한 우리의 논의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해보면, 첫째, 로크는 스콜라철학자들의 실체개념에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명시적으로 그 개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때의 실체는 실체일반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그는 '실체라는 말을 사용했고, 그것에 어떤 궁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그가 실체개념을 개별종의 실체개념으로 보았을 때 가능했다. 과학적 탐구에 의해서 밝혀질 사물들의 실재적 본질, 내적 구조가 그가 옹호하고자 한 실체개념이었다.

참 고 문 헌

1. 주텍스트

J.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P. H. Nidditch,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_____, ed., A. C. Fraser,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vol-1.

2. 연구서 및 논문들

P. S. Woolhouse, *Lock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M. Mandelbaum, *Philosophy, Science and Sense Perception*, Cambridge, 1970.

J. W. Yolton, *Locke and The Compass of Human Understanding*, Cambridge, 1970.

J. Bennett, *Locke, Berkeley and Hume*, Oxford, 1979.

J. L. Mackie, *Problems From Locke*, Oxford, 1976.

P. Alexander, *Ideas, Qualities and Corpuscles*, Cambridge, 1985.

J. D. Rabb, *John Locke on Reflecti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Washington, D. C., 1985.

J. W. Yolton, *Perceptual Acquaintance from Descartes to Reid*, Basil Blackwell, 1984.

G. E. M. Anscombe & P. T. Geach, *Three Philosophers*, Basil Blackwell Oxford, 1973.

D. J. O'Connor, *John Locke*, Penguin Books, 1952.

M. R. Ayers, "The ideas of power and substance in Locke's Philosophy", *Locke on Human Understanding*, ed., I. C. Tipton, Oxford, 1977

W. von. Leyden, "What is a nominal essence the essence of?" *John Locke-Problems and Perspectives*, ed., J. W. Yolton, Cambridge, 1969.